

부부의 개인별 덕목과 부부 덕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이 수 아

고 영 건†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부부의 개인별 덕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와 부부 덕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개인별 덕목이란 개인이 지닌 가치 있고 바람직한 핵심 특성을 의미한다. 부부 덕목이란 부부가 함께 공유하는 덕목을 의미한다. 한국인 부부 107쌍(남 107명, 여 107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축약판 개인 덕목 척도(Values in Action-Inventory of Strengths: VIA-IS), 개인 덕목 척도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문항을 재기술한 부부 덕목 척도, 부부의 전반적인 결혼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 중 전반적 불만족 척도(K-MSI, General Dissatisfaction Scale: GDS)를 역채점한 척도가 사용되었다. 부부의 자료가 상호의존적인 특수한 관계임을 감안, APIM(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Cook & Kenny, 2005; Kenny, Kashy, Cook, & Simpson, 2006)을 적용하였고 이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개인 덕목 대비 더 다양한 부부 덕목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부부가 덕목을 개인적으로 지니기보다는 함께 공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덕목, 성격강점, 결혼만족도, APIM

* 본 연구는 제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2011)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 고영건,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Tel : 02-3290-2060, E-mail : elip@korea.ac.kr

“OECD 국가 중 9위, 아시아에서는 1위”.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더 이상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다. 통계청이 내놓은 ‘혼인 이혼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건수는 10만6000건으로 전년 대비 1.2%, 1300건이 감소했으나, 이는 결혼 자체가 줄어든 영향으로, 혼인 건수에 비례해 보면 감소한 수치라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통계청, 2018). 혼인 건수 감소의 영향으로 이혼율은 감소 추세지만, 결혼 20년 이후의 ‘황혼 이혼’ 비중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결혼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은 3만3124건으로 10년 전인 2007년보다 1.3배 늘어났고, 전체의 31.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처럼 황혼 이혼이 늘어나다 보니, 부부가 법적 혼인관계는 유지하면서 서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졸혼’이라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기도 하였다(이승숙, 정문주, 2017). 이와 같이 부부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곧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족이 위협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부부의 안정되고 만족스러운 결혼생활과 연관된 변인들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결혼만족도(marital satisfaction)란 결혼 생활 전반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과 태도를 뜻한다(Burr, 1971).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첫째로, 성별, 소득수준, 가족생활주기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결혼만족도가 높고(Dillaway & Broman, 2001),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으며(Dakin & Wampler, 2008), 결혼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결혼만족도는 U자형 곡선을 띤다는 연구결과

(Lewis & Spanier, 1979) 등이 있다. 두 번째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적 변인들을 살펴보면, 귀인 유형(Karney, Bradbury, Fincham, & Sullivan, 1994), 애착 유형(Bartholomew, 1993), 신경증적 성격 특성(Karney & Bradbury, 1995), 비합리적 신념체계(Epstein & Eidelson, 1982), 자존감(박영화, 고재홍, 2005), 초기 부적응 도식과 정서조절방략(이지혜, 채규만, 2012) 등 실로 다양한 변인들이 연구되어 왔다. 끝으로, 부부의 유사성(Acitelli et al, 1993; Allen & Thompson, 1984), 부부 간 애착 방식(Jacobson, 2003), 갈등해소 유형(Kurdek, 1995; Cramer, 2000), 부부 간 의사소통과 성적인 친밀감(손강숙, 주영아, 2015) 등 부부의 관계성 차원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다양한 변인들 중에서도, 부부의 성격 특성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2018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7년도 우리나라 부부의 이혼 사유 1위는 ‘성격 차이(43%)’이며, 이는 ‘기타 중대한 사유(20%)’, ‘경제문제(10%)’, ‘배우자 부정(7%)’, ‘가족간 불화(7%)’ 등과 비교해봐도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18). 우리나라의 이혼 사유로 제시되는 성격 차이는 실제 성격의 차이를 의미하기 보다는 부부간 의견을 조율할 수 없는 갈등 상태를 명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으며(김경미, 김영희, 2009), 개인이 갖고 있는 성격 특성 자체는 좋고 나쁜 것이 아니므로 성격 차이로 인해 발생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다(Levenson & Gottman, 1994). 그럼에도 많은 부부들이 성격의 문제를 이혼 사유 1순위로 꼽는다는 점은, 부부의 성격 특성에 대한 연구가 보다 면밀히 이루어져야 할 사회적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덕목 및 성격강점과 결혼만족도

개인의 성격 특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신경증, 개방성, 외향성, 성실성, 친화성의 5개 하위 요인으로 성격 특성을 분류하는 Five-Factor Model(Costa & McCrae)을 바탕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e.g., Gattis, Berns, Simpson, & Christensen, 2004; Goldberg, 1992; South, Turkeimer, & Oltmanns, 2008). 성격 5요인과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다룬 70여개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Heller, Watson과 Iles(2004)에 따르면, 5개 성격 특성 모두 결혼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으며, 특히 신경증은 가장 강력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한편 성격 특성은 자기 자신 뿐 아니라 상대방 파트너의 결혼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성격 5요인과 파트너의 관계만족도 간 관계를 다룬 19개 연구를 메타분석한 Malouff 등(2010)에 따르면, 5개 중 4개 성격 특성 - 신경증, 친화성, 성실성, 외향성 - 이 친밀한 파트너의 관계만족도와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

Five-Factor Model 이외에도 성격 특성을 다양한 틀로 분류하려는 시도들이 있어왔으며, 최근에는 긍정심리학적 조류와 함께 인간의 긍정적 성격 특성을 집대성한 덕목과 성격 강점의 분류 체계(Values in Action: VIA)가 주목받고 있다(Peterson & Seligman, 2004). Peterson과 Seligman(2004)에 따르면 덕목이란 오랜 기간 현인들에 의해 가치 있고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 핵심 특성을 의미하며, 성격 강점이란 각 개인이 자신의 덕목을 구현함에 있어 선택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과정을 뜻한다.

VIA 분류체계에 따른 6개의 상위 덕목은 지혜 및 지식, 용기, 인간애, 정의, 절제, 초월성이며, 이는 다시 24개의 하위 성격 강점을 포괄하고 있다. 그간 연구에 의하면 덕목 및 성격 강점은 결혼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1에는 VIA 분류체계에 따른 덕목 및 성격강점, 그리고 이들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다룬 경험적 연구들이 간략히 소개되어 있다.

한편, 덕목 및 성격 강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다(e.g., 박영화, 고재홍, 2005; Acitelli, 1992; Antonucci, 1994; Barbee et al., 1993; Bentler & Newcomb, 1978; Carroll, Badger, & Yang, 2006; Julien & Markman, 1991; Strom, 2003). 그러나 유의미한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들도 존재하며(Karney & Bradbury, 1995; Luo et al., 2008), 역으로 남성의 성격 강점과 결혼만족도 간 상관이 여성 경우보다 더 높았다는 결과도 보고되므로(Holman, Larson, & Harmer, 1994), 이러한 성차를 일반화시키기에는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다.

부부 덕목 및 성격강점과 결혼만족도

앞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간략히 개관하며, 관계성 차원의 변인들이 연구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남편과 아내의 개인(individual) 특성을 넘어 커플 자체가 지니는 특성을 양자(dyadic) 변인이라고 하며,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양자 변인으로 가장 활발히 연구가 진행된 것 중 하나는 커플 유사성(couple similarity)이다(e.g., Cronbach & Gleser, 1953; Gaunt, 2006; Luo et al., 2008). 하나의 집

표 1. 덕목 및 성격 강점의 분류체계(Peterson & Seligman, 2004) 및 성격 강점과 결혼만족도 간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덕목 및 성격 강점	성격 강점과 결혼만족도 간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1. 지혜와 지식: 지식의 획득과 사용을 포함하는 인지적 강점		
창의성		
호기심		
개방성	Botwin et al.(1997)	남편과 아내 모두의 지적 개방성은 배우자의 결혼만족도를 예측함
학구열		
통찰/지혜	Strom(2003) Bentler & Newcomb(1978)	남편의 지혜는 아내의 결혼만족도와 정적 상관 나타냄 현상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아내의 지혜는 아내 자신의 결혼만족도를 예측함
2. 용기: 내,외적 반대에 직면하여 목표를 성취하는 의지와 관련된 정서적 강점		
용감함		
인내/근면	Strom(2003)	남편의 근면성은 아내의 결혼만족도와 정적 상관 보임
진실성	Shackelford et al.(2008)	진실성이 높을수록 배우자의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Botwin et al.(1997)	아내의 진실성은 남편의 성적만족감과, 남편의 진실성은 아내의 결혼만족도와 정적 상관 보임
	Strom(2003)	남편의 진실성은 아내의 결혼만족도와 정적 상관 보임
활력		
3. 인간애: 타인을 돌보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을 포함하는 대인간 강점		
사랑	Carroll et al.(2006)	남녀 모두 자신은 물론 배우자의 사랑하는 능력이 관계의 질을 유의하게 예측함
친절/관용/이타성	Veldorale-Brogan et al.(2010)	배우자의 이타성과 관용에 대한 지각이 결혼만족도를 직접적으로 예측함
	Stanley et al. (2006)	이타적 사랑은 현재 및 차후 결혼만족도와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특히 차후 만족도와 더 강한 상관을 나타냄
	Shackelford et al. (2008)	친화성은 배우자의 결혼만족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 덕목 및 성격 강점의 분류체계(Peterson & Seligman, 2004) 및 성격 강점과 결혼만족도 간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계속)

덕목 및 성격 강점	성격 강점과 결혼만족도 간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사회성		
4. 정의: 건강한 공동체 생활을 이루는 시민정신과 관련된 강점		
시민의식/협동심	Kaslow & Robinson(1996)	결혼만족도가 높은 부부일수록 협동심이 더욱 강한 것으로 나타남
공정성		
리더십		
5. 절제: 무절제를 막는 강점		
용서/자비	서정선, 신회천(2007)	용서는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아내의 용서는 남편의 결혼만족도에도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겸손/겸양		
신중함	Bentler & Newcomb(1978)	결혼 초 평가된 남편의 신중함은 이후 남편 자신의 결혼만족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기조절	Kobak & Hazan(1991)	정서조절이 남녀 모두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애착과 결혼만족도 간 관계에서 중재변인으로 작용함
	Strom(2003)	남편 스스로 자각하는 자기조절은 아내의 결혼만족도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Gottman et al. (1977)	갈등관계의 부부는 화목한 부부 대비 정서조절 능력이 부족하며, 이는 배우자 간 낮은 지지로 연결됨
6. 초월성: 보다 큰 우주와 접근적으로 연결되며 의미를 부여하는 강점		
감상력		
감사		
희망/낙관성	Kurdek(1995)	긍정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려 하는 낙관성은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침
유머	Ziv(1989)	남녀 모두 배우자의 유머를 높게 지각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영성/종교성	Brody et al. (1994)	남녀 모두 종교성이 높을수록 부부간 상호작용이 원만하고 갈등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단으로서의 부부의 독특한 정체성에 대한 관심은 철학계에서 비롯되었다. 철학자 Teilhard de Chardin(1964, 1968)은 커플의 진화론적 모델을 제시하며, 우주 생성에 대한 관점을 부부

의 생성, 즉 결혼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한 바 있다. 즉, Chardin은 우주 만물이 연합(union)과 생성(generation)에 의해 제3의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듯, 개별성을 지닌 두 개인이 만나 결혼하게 되면 독특한 연합체(union)가 생겨난다고 하였다. 부부의 노력을 통해 이 연합체는 두 사람보다 더 큰 존재가 될 수 있으므로, 결혼은 창조적인 과정이라고 하였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철학자 Buber(1958)는 “영혼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당신 사이에 있다”라고 하며, 두 개인이 소통을 통하여 새로운 차원에 이르게 됨을 강조하였다. 부부의 독특한 정체성에 대해 개념화하려는 노력은 심리학계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우리됨(us-ness)”(Hargrave, 2000), “파트너십(partnership)”(Fowers, 2000), “일치감(a sense of unity)”(Buehlman, Gottman, & Katz, 1992), “부부 유대감(marital bond)”(Carrère, Buehlman, Gottman, Coan, & Ruckstuhl, 2000) 등으로 다양하게 명명되는 이 같은 개념화는 공히 협력, 협동, 팀워크, 조화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Hargrave(2000)는 우리됨에 대하여 “이 개념이 흥미로운 점은 ‘나’도 아니고 ‘당신’도 아니라는 점이다. 둘이 결혼하여 전혀 새로운 존재를 창조해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는 또한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부모를 닮았더라도 자신만의 정체성을 갖고 있듯, 우리됨도 남편과 아내를 닮았으며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제안하였다. Fowers(2000)는 결혼을 통해 두 개인 사이에 형성되는 파트너십이 개개의 특성을 초월하여 보다 가치있는 공동의 목적을 추구한다고 하였다. 경험적 연구들에 의하면, 이 같은 부부 공동의 정체성을 자각하는 것은 결혼생활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uehlman 등(1992)은 부부의

일치감에 대한 지각이 결혼 안정성을 예측한다고 하였다. Carrère 등(2000)의 연구에서도 신혼부부의 지각된 부부 유대감은 이후의 결혼 유지 여부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개인의 정체성을 넘어 부부라는 집단 자체의 정체성이 주목 받는 것과 같이, 덕목 및 성격 강점 연구에 있어서도 개인뿐 아니라 부부 수준의 변인을 연구해야 한다는 제안들이 있다. Hawkins, Fowers, Carroll과 Yang(2007)은 앞으로의 결혼 연구에서 배우자 개개의 성격 강점을 넘어 관계 자체의 강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같은 연구는 부부의 정체성을 하나의 단위로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였다. Fincham, Stanley와 Beach(2007)는 그간의 결혼 연구가 지나치게 부정적 요소들에 비중을 두었음을 지적하며, 부부에게는 외부 개입 없이도 갈등을 스스로 치유하고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해 나가도록 해주는 집단적 힘이 있다고 하였다. 저자들은 이 같은 집단적 힘을 ‘부부 안의 자기조절기제(self-regulatory mechanisms located within the dyad)’라고 칭하며 헌신, 희생, 용서 등을 예로 들었다.

부부의 덕목 및 성격 강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경험적 연구로는 Mahoney 등(1999)의 부부의 종교성 연구가 있다. 이들은 기존의 부부 연구에서 주로 다뤄 온 개인의 종교성(individual religiousness)이 지니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즉, 개인 수준의 종교성만을 평가해서는 부부의 결혼생활 안에 얼마나 종교가 녹아들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종교성은 결혼과의 연결성이 다소 낮은 종교적 변인(distal religious variable)이라 규정하고, 결혼과 보다 직접적으로 연결된 종교적 변인(proximal religious

variable), 즉 결혼 자체에 갖든 종교성을 측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저자들은 남편과 아내에게 ‘커플로서 얼마나 종교적 활동을 함께 하는가’, ‘자신들의 결혼생활을 얼마나 성스럽게 지각하는가’ 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부부가 지각하는 부부의 종교성은 개인의 종교성과 달리 남편과 아내 모두의 결혼만족도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이 같은 관계는 개인의 종교성, 부부간 신앙 일치성, 인구통계학적 변인 등의 영향을 통제 한 후에도 존재했다. 이들이 연구한 종교성을 덕목 및 성격강점 분류체계로 확장해본다면, 부부가 함께 공유하는 덕목 및 성격강점은 개인의 그것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결혼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질 것으로 시사된다.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성격 특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Five-Factor Model을 근간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최근엔 긍정심리학의 흐름과 함께 긍정적 성격 특성, 즉, 덕목 및 성격 강점의 결혼만족에 대한 영향력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개별 성격 강점들에서 나아가, 종합적인 분류체계에 입각하여 덕목 및 성격 강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또한 몇몇 이론가들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덕목 및 성격 강점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이것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경험적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부부의 개인별 덕목 및 성격 강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부부 차원에서 존

재하는 부부 덕목 및 성격 강점을 평가한 뒤 이것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인 차원과 부부 차원에서 각각 얼마나 다양한 덕목에 걸쳐 얼마나 큰 영향력이 나타났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덕목 및 성격 강점이 개인적으로 발휘될 때보다 부부 차원에서 공유되고 발휘될 때에 결혼만족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내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선행 연구들에서 여성보다 남성의 결혼만족도가 덕목 및 성격 강점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부부 덕목 및 성격 강점에 있어서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 및 지방에 거주하는 부부 200쌍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 부부 중 한쪽의 자료가 수집되지 못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남편과 아내가 함께 설문에 응답한 107쌍(남편 107명, 아내 107명)만을 연구에 포함시켰다. 연구에 포함된 부부들의 평균 결혼 기간은 8.02($SD=6.39$)년이었고, 평균 연령은 남편 만 36.63($SD=6.03$)세, 아내 만 34.73($SD=5.65$)세였다. 이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측정도구

개인 덕목 척도

본 연구에서는 성격 강점의 상위 개념에 해

표 2. 인구통계학적 특징

(N=214)

	남편				아내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연령	20~30대	77	(72.5)	연령	20~30대	89	(83.5)
	40대~60대	30	(27.5)	연령	40대~60대	18	(16.5)
학력	고졸	6	(5.5)	학력	고졸	10	(9.2)
	전문대졸	8	(7.3)		전문대졸	19	(17.4)
	대졸 이상	93	(87.1)		대졸 이상	78	(73.4)
직업	사무직	50	(47.7)	직업	사무직	23	(21.5)
	전문직	9	(8.3)		전문직	16	(15)
	특수직(군인, 경찰 등)	36	(33)		주부	59	(55.1)
	기타	12	(11)		기타	9	(8.4)
월소득	150만원 이하	1	(0.9)	월소득	150만원 이하	72	(67.3)
	150만원~300만원	34	(31.8)		150만원~300만원	20	(18.7)
	300만원~450만원	27	(25.2)		300만원~450만원	5	(4.7)
	450만원 이상	41	(38.3)		450만원 이상	9	(8.4)
	무응답	4	(3.8)		무응답	1	(0.9)
부부 공통							
결혼기간	3년 미만	25	(22.9)	거주지	대도시	58	(54.1)
	3년~5년	24	(22.9)		중소도시	32	(29.8)
	5년~10년	28	(26.2)		농어촌지역	17	(16.1)
	10년 이상	30	(28)				

당하는 덕목 수준에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성격 강점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다루었음에도 성격 강점이 아닌 덕목을 연구 변인으로 채택한 것은, 개인 변인과 양자 변인을 모두 측정해야 하는 본 연구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즉, 개인의 24가지 성격 강점과 결혼만족도 간 관계, 부부의 24가지 성격 강점과 결혼만족도 간 관계

를 모두 살펴보는 것은 복잡하므로, 연구를 보다 간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상위 덕목과 하위 성격 강점 간의 요인구조에 대해선, Peterson과 Seligman(2004)이 VIA-IS(Values in Action-Inventory of Strengths) 척도에 대한 요인 분석을 통하여 다섯 개 요인을 도출한 바 있다: 자제의 강점(예: 공정함, 인간애, 자비, 신중함), 지적 강점(예: 창의성, 호기심, 학구열,

감상력), 대인간 강점(예: 친절, 사랑, 지도력, 협동심, 유쾌함), 정서적 강점(예: 용감함, 희망, 자기조절, 활기), 신학적 강점(예: 감사, 영성). 이러한 요인구조는 저자들의 초기 분류와 일치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유사하다. 즉, 자체의 강점들은 절제의 덕목과, 지적 강점들은 지혜 및 지식의 덕목과, 대인간 강점들은 인간애와 정의에 관한 덕목과, 정서적 강점들은 용기의 덕목과, 신학적 강점들은 초월성 덕목과 상응하고 있다. 이 같은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6개 덕목이 하위 24개 성격 강점들을 대체로 잘 포괄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개인 덕목 및 부부 덕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로 하였다.

Peterson과 Seligman(2004)이 VIA 분류체계에 입각하여 개인의 6가지 상위 덕목과 24가지 하위 성격 강점을 평가하도록 제작한 VIA-IS는 각 성격 강점 당 10문항씩 총 2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Seligman(2002)

이 VIA-IS 중 각 강점마다 변별력이 가장 높은 2문항씩을 선별하여 총 48문항으로 재구성한 VIA-IS 축약판을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1점(나와 매우 다르다)에서 5점(나와 매우 비슷하다)까지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Leontopoulou와 Triliva(2012)의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본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전체 척도 .82, 지혜 척도 .76, 용기 척도 .76, 인간애 척도 .74, 정의 척도 .70, 절제 척도 .69, 초월성 척도 .75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표 3에 제시되었다.

부부 덕목 척도

부부의 6가지 상위 덕목과 24가지 하위 성격 강점을 측정하기 위하여 VIA-IS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문항을 재기술한 부부 덕목 척도를 사용하였다. 재기술은 VIA-IS 문항의 주어를 '나'에서 '우리 부부'로 바꾸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

표 3. 개인 덕목 척도 및 부부 덕목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

	전체 척도	지혜	용기	인간애	정의	절제	초월성
개인 덕목 척도	.90	.75	.72	.61	.70	.44	.77
부부 덕목 척도	.91	.67	.70	.67	.77	.50	.83

표 4. 부부 덕목 척도의 문항 예시

문항 예시	
지혜	우리 부부는 언제나 세상에 대해 호기심이 많다.
용기	우리 부부는 고통과 좌절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꺾힐 때가 많다.
인간애	우리 부부는 자발적으로 이웃을 도와준다.
정의	우리 부부는 소속 집단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개인적인 이익을 희생시킬 생각이 없다.
절제	우리 부부는 성급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초월성	우리 부부는 항상 긍정적인 면만 본다.

보하기 위해 심리학 전공 교수 1인과 박사 2인의 감수를 거쳤다. 본 척도는 부부가 반드시 문항을 함께 읽고 의논을 거친 후에 ‘우리 부부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1점(우리 부부와 매우 다르다)에서 5점(우리 부부와 매우 비슷하다)까지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성격 강점 당 2문항씩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표 3에 제시되었다. 부부 덕목 척도의 덕목별 문항 예시는 표 4와 같다.

결혼만족도 척도

결혼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과 부부 관계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K-MSI)(권정혜, 채규만, 1999)의 하위척도인 전반적 불만족 척도(GDS)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K-MSI)는 Snyder(1979, 1997)가 개발한 결혼만족도 검사(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MSI)와 이 척도의 개정판(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Revised: MSI-R)을 권정혜와 채규만(1999)이 한국 실정에 맞게 재표준화한 것이다. 전반적 불만족 척도(GDS)는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위형(예, 아니오)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다. 이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생활에 불만족함을 나타내므로, 본 연구에서는 역채점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8이었다.

연구절차

자료 수집은 연구자의 지인들을 통해 소개 받은 부부들을 대상으로 설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설문 전 부부들에게 연구의 목적

과 방법을 설명하고, 이후 동의서에 사인을 받았다. 설문지는 ‘부부 공동’, ‘남편용’, ‘아내용’ 설문지 3부와 ‘남편용’, ‘아내용’ 소봉투 2개를 다 같이 대봉투에 넣어 배부하였으며, 법적인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한 쌍이 설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부부 덕목을 평가하는 부부 공동 설문지의 경우엔 반드시 부부가 함께 의논하여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외 개인 덕목 척도, 결혼만족도 척도 등이 포함된 개인용 설문지의 경우엔 남편과 아내가 개별적으로 설문에 응답한 후 각자의 소봉투에 넣어 밀봉한 뒤 제출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모든 설문에 응답하는 데에는 약 30~4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연구 참여에 대한 금전적 보상으로 참가자들에게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제공되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한 통계 프로그램은 PASW 18.0과 AMOS 20.0이다.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주요 변인들 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개인을 분석의 단위로 하였다(N=214). 다음으로 부부의 개인별 덕목이 자신과 상대방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6개의 덕목 별로 APIM을 실시하였다. APIM은 부부와 같이 상호의존성이 존재하는 짝 자료의 예측적 관계를 검증할 때 이용되는 분석 방법이다. APIM의 두 가지 중심된 구성요소는 자기효과(actor effect)와 상대방효과(partner effect)이다. 자신의 고유한 어떤 특성(X)이 자기 자신의 결과(Y)에 미치는 효과를 자기효과라 하며, 자신의 특성(X)이 상대방의

결과(Y')에 미치는 효과를 상대방효과라 한다. 짝 관계 내에 있는 개인은 자기 자신 뿐 아니라 상대방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APIM을 통하여 이 두 범주의 효과를 동시에 살펴볼 수 있다. APIM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결합회귀(pooled-regression), 구조방정식 모형, 다층 모형 등이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짝 내 구성원들의 값이 구별 가능한(distinguishable) 경우(예: 남편-아내, 엄마-딸), 구조방정식 모형은 APIM을 추정하기 위한 가장 간명한 접근법으로 추천된다(Kenny et al., 2006). 구조방정식 모형의 장점 중 하나는 예측변인들 간 상관과 준거변인의 잔차 간 상관이 가정된다는 점이다(Cook, 1998). 본 연구에서 다루는 결혼만족도와 같이 준거변인을 설명할 수 있는 예측변인이 매우 여러 가지인 경우, 잔차 간 상관은 더욱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Lee(2015)의 연구에 따르면 구별 불가능한(indistinguishable) APIM에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표본 크기는 50 쌍으로 나타났으며, 표본 크기가 작은 APIM에서도 결합회귀보다 구조방정식 모형이 더 적합한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구조방정식 모형은 APIM 분석에서 권고되고 있으며,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통해 덕목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및 경로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APIM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하기로 하였다. 6개 하위 덕목 별 각각의 측정모형을 검증하였으며, 이때 분석의 단위는 개인이 아닌 쌍이 되었다($N=107$). 그 다음 부부의 6가지 덕목이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각각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을 사용한 모형 검증에서는 TLI(Tucker-Lewis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of Error Approximation)를 통해 적합성을 판단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간 상관이 표 5에 제시되었다. 성별과 결혼만족도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 높은 결혼만족도를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6, p<.01$). 개인의 덕목 중 정의와 절제를 제외한 4가지 덕목에서 결혼만족도와의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는데, 용기($r=.23, p<.01$), 초월성($r=.20, p<.01$), 지혜($r=.18, p<.01$), 인간애($r=.15, p<.05$) 순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의 덕목 중 정의를 제외한 5가지 덕목에서 결혼만족도와의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는데, 초월성($r=.32, p<.01$), 지혜($r=.27, p<.01$), 절제($r=.24, p<.01$), 인간애($r=.22, p<.01$), 용기($r=.20, p<.01$) 순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덕목과 부부 덕목 간에는 6가지 덕목 모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덕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본 연구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6가지 덕목을 잠재변인으로 설정하고, 각 덕목에 해당하는 하위 성격 강점들을 잠재변인에 대한 관찰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단, 결혼만족도의 경우 하

표 5. 연구에 포함된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및 평균, 표준편차 (N=214)

	M	SD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성별	-	-													
2.결혼만족도	18	4.09	-.26**a												
3.개인지혜	7.09	0.98	-.11	.18**											
4.개인용기	7.36	1.01	-.07	.23**	.6**										
5.개인인간에	7.44	1.05	.08	.15*	.52**	.49**									
6.개인정의	6.49	1.18	-.14*	.12	.42**	.45**	.47**								
7.개인절제	6.98	.86	.06	.13	.43**	.43**	.39**	.36**							
8.개인초월성	7.6	.97	.09	.2**	.61**	.61**	.69**	.4**	.44**						
9.부부지혜	7.04	.85	-.b	.27**	.46**	.27**	.33**	.15*	.22**	.41**					
10. 부부용기	7.3	.9	-.b	.20**	.33**	.45**	.31**	.17*	.21**	.36**	.64**				
11. 부부인간에	7.28	1.02	-.b	.22**	.25**	.18**	.42**	.26**	.25**	.38**	.56**	.55**			
12. 부부정의	6.36	1.25	-.b	.04	.14*	.06	.21**	.44**	.18**	.16*	.38**	.32**	.56**		
13. 부부절제	7.21	.82	-.b	.24**	.21**	.23**	.23**	.1	.34**	.23**	.4**	.45**	.49**	.28**	
14. 부부초월성	7.67	1	-.b	.32**	.27**	.3**	.4**	.11	.21**	.5**	.63**	.67**	.62**	.33**	.48**

* $p < .05$, ** $p < .01$, *** $p < .001$

^a '남성=0, 여성=1'로 성별을 코딩하였고 남성이 더 높은 결혼만족도를 보고함에 따라 부적 상관이 산출됨.

^b 부부 덕목은 커플 당 하나의 값을 갖게 되므로 성별과의 상관이 0으로 산출됨.

위 요인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측정오차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권고되는 문항 꾸러미(item-parceling)를 사용하였다(Coffman & MacCallum, 2005). 관찰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형의 적합도를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TLI, CFI, RMSEA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이들 적합지수는 표본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RMSEA와 TLI는 모형의 간명성도 함께 평가해주기 때문에(홍세희, 2000; Bandalos, 1997)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데 사용하였다. 대략적인 기준으로, TLI와 CFI는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며, RMSEA는 .05보다 작으면 좋은 적합도(close fit),

.08보다 작으면 괜찮은 적합도(reasonable fit), .10보다 작으면 보통 적합도(mediocre fit), .10 이상이면 나쁜 적합도(unacceptable fit)를 뜻한다(Bentler, 1990; Browne & Cudeck, 1993; Kelloway, 1998; Tucker & Lewis, 1973). 측정모형의 검증 결과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그런데 표 6에서 나타난 절제와 같이 RMSEA = 0인 경우엔 모형이 완벽하게 부합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모형의 χ^2 값이 df 보다 작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문수백, 2009). χ^2 값은 관찰변인들 간 상관계수의 크기에 매우 민감하므로, 이 같은 결과는 절제 척도에 해당하는 문항들 사이의 상관이 낮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즉 본 연구모형은 절제

표 6. 개인 덕목 별 측정 모형의 적합도 (N=107)

개인 덕목	χ^2	df	TLI	CFI	RMSEA
지혜	122.602	98	.948	.958	.049
용기	86.802	71	.963	.971	.046
인간애	49.712	48	.994	.996	.018
정의	51.719	48	.988	.991	.027
절제	69.587	71	1.005	1.000	.000
초월성	134.602	98	.929	.942	.059

표 7. 개인 덕목 별 측정 모형의 요인 값 (N=107)

척도	하위요인	비표준화 요인값	표준오차	표준화된 요인값	척도	하위요인	비표준화 요인값	표준오차	표준화된 요인값
지혜 (남편)	창의성	1		.549***	지혜 (아내)	창의성	1		.521***
	호기심	1.226	.263	.703***		호기심	1.491	.31	.786***
	개방성	1.351	.318	.589***		개방성	1.375	.293	.722***
	학구열	1	.224	.638***		학구열	1.105	.259	.601***
	통찰	1.264	.278	.663***		통찰	1.024	.246	.574***
용기 (남편)	용감함	1		.621***	용기 (아내)	용감함	1		.375***
	인내	1.53	.253	.937***		인내	1.724	.525	.718***
	진실성	.751	.155	.541***		진실성	1.313	.409	.648***
인간애 (남편)	활력	.966	.174	.64***	인간애 (아내)	활력	1.86	.564	.74***
	사랑	1		.639***		사랑	1		.498***
	친절	.973	.245	.567***		친절	1.544	.522	.811***
정의 (남편)	사회성	1.483	.367	.702***	정의 (아내)	사회성	1.017	.305	.482***
	시민의식	1		.721***		시민의식	1		.866***
	공정함	1.136	.281	.634***		공정함	.565	.164	.45***
절제 (남편)	리더십	.935	.231	.609***	절제 (아내)	리더십	.862	.22	.66***
	용서	1		.687***		용서	1		.505***
	겸손	.499	.247	.333***		겸손	.448	.278	.258***
	신중함	.549	.261	.36***		신중함	.558	.285	.351***
초월성 (남편)	자기조절	.477	.237	.328***	초월성 (아내)	자기조절	.335	.261	.192***
	심미안	1		.609***		심미안	1		.532***
	감사	1.022	.18	.753***		감사	1.077	.251	.597***
	희망	.959	.176	.704***		희망	1.329	.275	.771***
	유머	.865	.184	.571***		유머	.892	.236	.492***
	영성	1.005	.178	.747***		영성	1.317	.278	.725***

*** $p < .001$

에 대해선 충분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절제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덕목의 경우, TLI와 CFI가 모두 .9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RMSEA는 모두 .08 미만의 괜찮은 적합도(reasonable fit)를 나타내고 있어, 모형이 대체로 자료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각 덕목 요인을 구성하는 하위요인들의 값은 표 7에 제시하였다.

각 덕목이 자신과 상대방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용기, 인간애, 초월성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그 결과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아내의 용기가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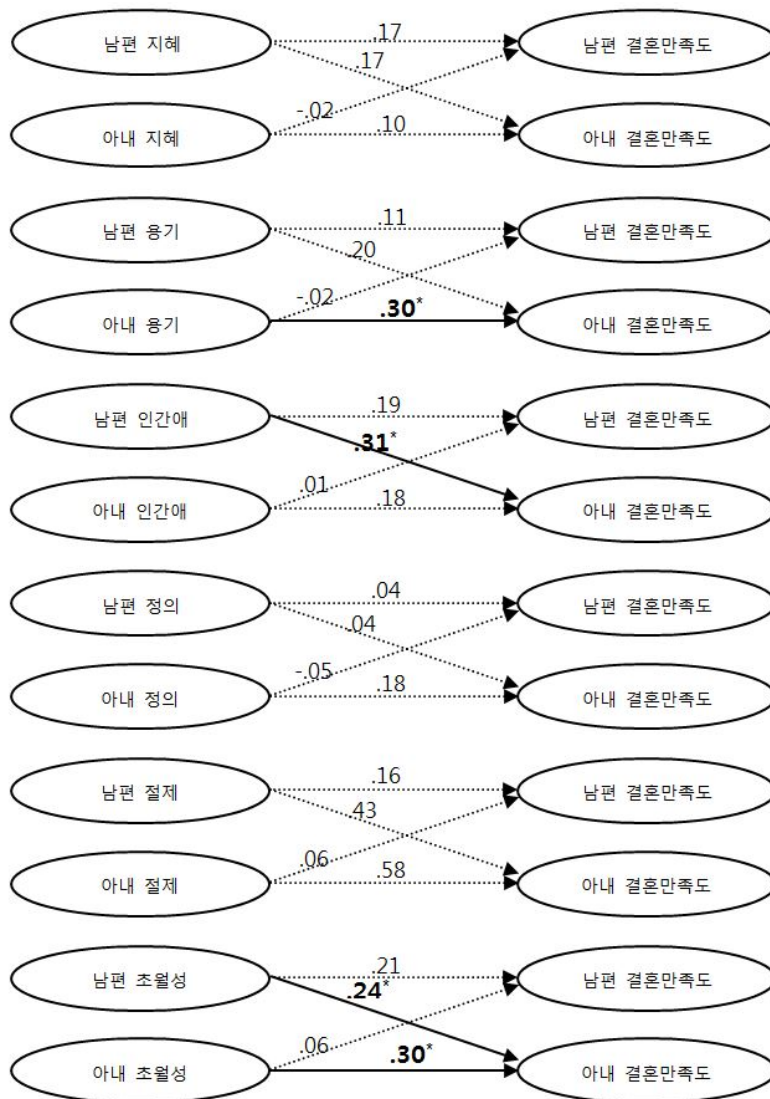


그림 1. 개인 덕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상대방 효과

* $p < .05$

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가 유의했으며($\beta=.30, p<.05$), 남편의 인간애가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상대방효과가 유의했다($\beta=.31, p<.05$). 초월성에선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모두 나타났는데, 아내의 초월성이 아내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beta=.30, p<.05$), 남편의 초월성이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상대방효과($\beta=.24, p<.05$)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 외의 관계에선 유의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APIM 분석을 통해 다른 제3의 변인으로 인한 효과를 통제하고 연구자가 가정한 예측 변인들의 순수한 설명량을 추정하고자 했을 때에, 예측변인인 개인 덕목들의 설명량이 그다지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부부 덕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부부의 6가지 덕목을 잠재변인으로 설정하고, 각 덕목에 해당하는 하위 성격 강점들을 잠재변인에 대한 관찰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관찰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형의 적합도를 TLI, CFI, RMSEA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표 8이 이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평가 결과,

6가지 덕목 모두 TLI 및 CFI가 .90 이상의 값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RMSEA는 모두 .08 미만의 괜찮은 적합도(reasonable fit)를 나타내고 있어, 모형이 비교적 자료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각 덕목 요인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들의 값은 표 9에 제시하였다.

각 부부 덕목이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정의를 제외한 5가지 덕목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 결과는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부부 지혜는 남편의 결혼만족도($\beta=.32, p<.05$)와 아내의 결혼만족도($\beta=.35, p<.05$)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부부 초월성 또한 남편의 결혼만족도($\beta=.37, p<.01$)와 아내의 결혼만족도($\beta=.43, p<.001$) 양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부부 용기($\beta=.31, p<.05$), 부부 인간애($\beta=.37, p<.05$), 부부 절제($\beta=.50, p<.01$)는 모두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대해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논 의

본 연구는 부부의 개인별 덕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와 부부 덕목이 결혼만족도

표 8. 부부 덕목 별 측정 모형의 적합도 (N=107)

부부 덕목		df	TLI	CFI	RMSEA
지혜	65.619	41	.92	.94	.075
용기	32.455	32	.998	.999	.012
인간애	28.234	24	.982	.988	.041
정의	26.658	24	.99	.993	.032
절제	41.34	32	.964	.974	.052
초월성	47.374	41	.984	.988	.038

표 9. 부부 덕목 별 측정 모형의 요인 값 (N=107)

척도	하위요인	비표준화 요인값	표준오차	표준화된 요인값
지혜	창의성	1		.365***
	호기심	1.813	.615	.593***
	개방성	2.581	.846	.745***
	학구열	1.348	.538	.396***
	통찰	1.737	.605	.544***
용기	용감함	1		.391***
	인내	1.622	.497	.641***
	진실성	1.522	.46	.68***
	활력	1.681	.502	.734***
인간애	사랑	1		.757***
	친절	.799	.242	.611***
	사회성	.612	.214	.397***
정의	시민의식	1		.739***
	공정함	.872	.161	.672***
	리더십	1.064	.194	.753***
절제	용서	1		.677***
	겸손	.628	.234	.396***
	신중함	.731	.243	.503***
	자기조절	.381	.219	.227***
초월성	심미안	1		.727***
	감사	.857	.132	.696***
	희망	.913	.127	.785***
	유머	.722	.119	.649***
	영성	.858	.132	.698***

*** $p < .001$

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려는 목적 하에 이루어졌다. 우선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총 4개의 개인 덕목이 결혼만족도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며, 총 5개의 부부

덕목이 결혼만족도와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개인 덕목 대비 더 많은 부부 덕목이 결혼만족도와의 상관을 나타내어, 부부의 행복한 결혼생활과 보다 밀접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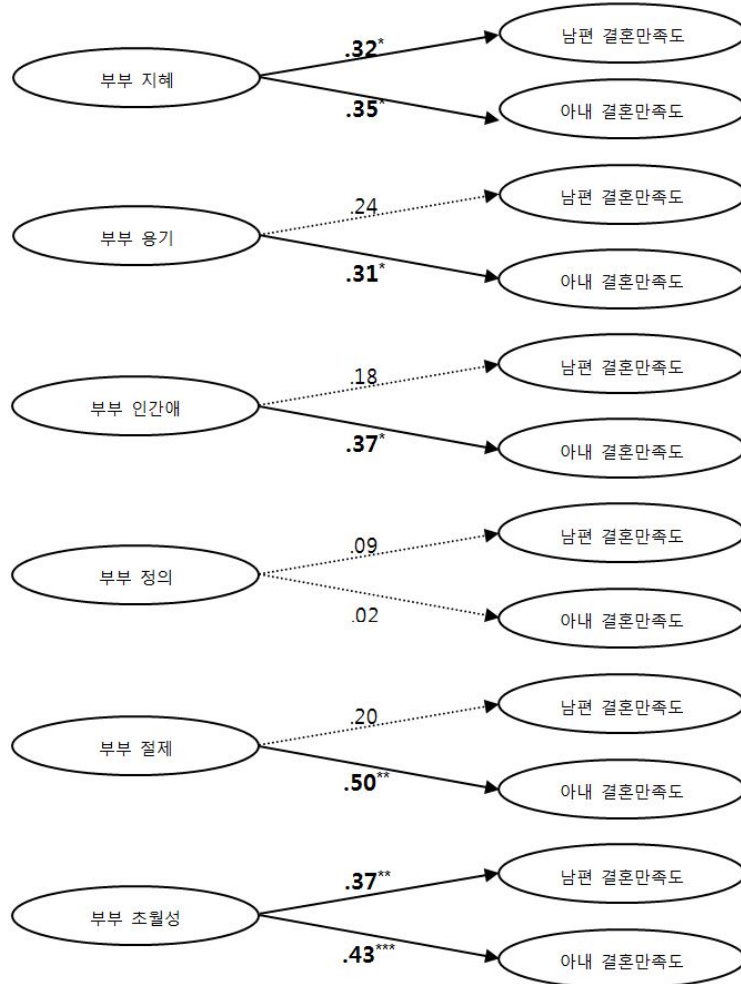


그림 2. 부부 덕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p < .05$, ** $p < .01$, *** $p < .001$

관련이 있을 것으로 시사되었다. 다음으로 6가지 개인 덕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이때 남편과 아내의 자료가 상호의존적임을 감안, APIM을 통해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추정하였다. 다음으로 6가지 부부 덕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위 같은 과정을 통하여, 개인 덕목보다 부부 덕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 더 큰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이 같은 판단에 대한 근거로 첫째, 개인 덕목 중에서는 남편과 아내 양쪽의 결혼만족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덕목은 한 개도 없었던 반면, 부부 덕목 중에서는 초월성과 지혜라는 두 덕목이 커플 양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덕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덕목을

결혼생활의 맥락 안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즉 덕목이 부부가 함께하는 일상 활동 및 결혼에 대한 지각 안에 어떻게 통합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Mahoney 등(1999)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어떤 덕목들은 부부 수준에서 발휘될 때에만 결혼생활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지혜의 경우, 개인 덕목으로서의 지혜는 부부 중 누구의 결혼만족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부부 덕목으로서의 지혜는 남편과 아내 양쪽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지혜는 ‘인생에서 중요하지만 불확실한 문제들에 대한 바른 판단과 충고(Baltes & Smith, 1990)’ 등으로 정의된다. 부부는 결혼 생활을 해나가는 동안 필연적으로 많은 문제들에 맞닥뜨리게 된다. 이때 어느 한 구성원의 지혜 보다는 단결된 집단으로서의 지혜가 더욱 요구될 것이다. 그러한 공동의 지혜를 잘 발휘하는 부부가 보다 더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하리라는 점이 본 연구 결과에서 시사된다. 한편 초월성의 경우, 개인 덕목으로서의 초월성은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쳤으나, 부부 덕목으로서의 초월성은 남편과 아내 모두의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력으로 작용하였다. 현상과 행위에 대해 의미를 부여해주는 초월성의 본질을 감안한다면 (Peterson & Seligman, 2004), 부부가 함께 초월성을 함양할 때에 그들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해서도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잘 가꾸어나갈 수 있으리란 점을 알 수 있다.

개인 덕목보다 부부 덕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또 다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개인 덕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의 경우, 성차의 효과를 배제한 채 순수한 덕목 자체의 효과로 귀인할

수 있는 경우는 초월성 하나에 불과했다. 다시 말해, 용기와 인간애의 경우는 ‘아내의’ 용기와 ‘남편의’ 인간애만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성별과 무관하게 덕목 자체로 영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반면에 부부 덕목은 부부가 함께 공유하는 덕목이므로 성차의 효과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총 다섯 개의 덕목(i.e., 지혜, 용기, 인간애, 절제, 초월성)이 부부 중 한쪽, 또는 두 명 모두의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끝으로,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개인 덕목과 부부 덕목의 영향을 모두 받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개인 덕목이 아닌 부부 덕목의 영향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덕목을 개인 차원으로만 바라본다면, 남성의 결혼만족이 여성 경우에 비해 덕목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일부 연구자들의 주장(e.g., Bentler & Newcomb, 1978; Strom, 2003)은 본 연구결과에서도 어느 정도 지지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부 차원에서 발휘되는 덕목은 남성에게도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새롭게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부부 덕목과 결혼만족도 간에는 개인 덕목의 경우보다 더 다양한 효과가 나타났으며, 개인 수준에서는 결혼만족에 영향력이 없었던 덕목(i.e., 지혜)이 부부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발휘하였고,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개인 덕목이 아닌 부부 덕목의 영향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앞으로의 부부 연구에서 개개인의 덕목 보다는 관계 자체의 덕목이 중요시되어야 한다는 이론가들의 제안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Fincham et al., 2007; Hawkins et al., 2007).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개인의 성격 강점과 결혼만족도 간 관

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 경우, 다양한 성격 강점들에서 결혼만족도에 대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난 반면, 본 연구에서는 개인 덕목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선행연구와의 불일치가 나타난 데에는 몇 가지 가능성이 있다. 우선 성격 강점 별로 10문항 중 2문항씩만 선별한 축약판 척도를 채택했고, 하위 성격 강점들을 묶은 상위 덕목 수준에서 연구를 진행함에 따라, 개별 성격 강점들이 지닌 효과가 희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APIM 분석을 통해 제3변인으로 인한 효과를 통제했을 때 독립변인의 순수한 설명력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으며, 작은 표본 크기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변인인 개인 덕목과 관계적 변인인 부부 덕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런데 관계적 변인은 태생적으로 개인적 변인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 같은 방식은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결과를 도출해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Luo et al., 2008). 따라서 추후 개인적 접근과 관계적 접근을 하나의 모델 안에 통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선 VIA 분류체계의 원저자인 Peterson과 Seligman(2004)의 제안에 따라 6개 상위 덕목이 24개 하위 성격 강점을 대체로 잘 포괄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덕목 및 성격 강점의 요인구조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즉, 문화와 지역, 그리고 계층에 따라 1개, 4개 혹은 5개의 덕목이 전체 성격 강점의 체계를 구성한다는 연구 결과도 상당수 존재한다(e.g., 임영진, 2012; Cawley III, Martin, & Johnson, 2000; Dahlsgaard, 2005; van Eeden,

Wissing, Dreyer, Park, & Peterson, 2008). VIA 분류체계의 요인구조는 참여집단의 특성에 따라 현저히 달라질 수 있다고 보이므로, 추후 요인구조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넷째, 부부 덕목을 측정하는 방식에 몇 가지 한계점이 있으며, 추후 다양한 대안적 접근이 요구된다. 즉,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에 합의된 덕목을 부부 덕목이라고 보았으며, 설문조사의 특성상 부부가 철저히 따로 평정하게끔 연구자가 통제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부부가 함께 의논하여 부부 덕목을 평정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 같은 평가 방식의 까다로움으로 인해 초기 모집 인원의 약 50%가량이 최종 응답에서 탈락되었으며, 서로 상의하여 응답을 마친 부부들은 이미 상호 존중적이고 긍정적인 부부 관계를 맺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남편과 아내의 의견이 서로 다를 때 한 사람의 의견에 동조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격리된 채 부부 덕목을 각자 평정하도록 한 뒤 이를 합산하거나, 부부의 개인별 덕목 점수를 합산하는 것과 같은 대안적 방법들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자기보고식 설문지에서 나아가, 부부 공동 과제 수행을 통해 부부 덕목을 측정하는 것과 같은 실험적 방법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하겠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선행변인으로 덕목을 가정하고 있으나, 연구에서 선정한 변인들의 차이가 역으로 결혼만족의 결과일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결혼만족도가 높은 부부일수록 부부 덕목을 더 잘 발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끝으로, 응답의 성실성 문제를 고려할 필요

가 있어 보인다. 어느 정도 민감할 수 있는 부부 관계 관련 문항들에 대해 응답하고 약소한 보상을 받는 형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다소 불성실한 응답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추후 연구에서는 약소한 보상을 받고 참가하는 경우 참가자들의 동기 및 응답의 성실성에 관한 확인 절차가 추가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상의 여러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종합적인 덕목 체계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최초로 살펴보았다는 의의를 지닌다. 또한, 개인의 특성으로만 간주되었던 덕목이 부부라는 집단적 수준에서 존재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이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덕목은 개인 수준에서 보유할 때보다 부부 수준에서 보유할 때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강력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 같은 집단적 수준에서의 덕목 연구는 앞으로 부부라는 유기체적 공동체가 지닌 독특성을 밝혀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부부치료 및 부부교육 등 임상 현장에서도 부부의 자조 체계를 기르도록 돕는 데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권정혜, 채규만 (1999).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의 타당화 연구 2: 이혼상담집단과 자녀상담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2), 139-150.

김경미, 김영희 (2009). 부부의 성격특성과 갈등의 상호작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1), 327-352.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학지사.

박영화, 고재홍 (2005).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 방식,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65-83.

서정선, 신희천 (2007). 용서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델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1), 87-106.

손강숙, 주영아 (2015). 기혼 중년남녀의 성적 친밀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부간 의사소통의 듣기와 말하기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4), 697-718.

이승숙, 정문주 (2017). 한국에서 '졸혼(卒婚)'을 원하는 여성들.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4), 689-711.

이지혜, 채규만 (2012). 부적응 도식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적응적 정서조절방략의 조절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8(2), 169-190.

임영진 (2012). 성격강점과 정신적 웰빙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1(3), 713-730.

통계청 (2018). 2017년 혼인 이혼 통계.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Acitelli, L. K. (1992). Gender differences in relationship awareness and marital satisfaction among young married coupl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8(1), 102-110.

Acitelli, L. K., Douvan, E., & Veroff, J. (1993). Perceptions of conflict in the first year of marriage: How important are similarity and understanding?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 Relationships*, 10, 5-19.
- Allen, A., & Thompson, T. (1984). Agreement, understanding, realization, and feeling understood as predictors of communicative satisfaction in marital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915-921.
- Antonucci, T. C. (1994). A life-span view of women's social relations.
- Baltes, P. B., & Smith, J. (1990). Toward a psychology of wisdom and its ontogenesis. *Wisdom: Its nature, origins, and development*, 1, 87-120.
- Bandalos, D. L. (1997). Assessing sources of error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The effects of sample size, reliability, and model misspecifica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4(3), 177-192.
- Barbee, A. P., Cunningham, M. R., Winstead, B. A., Derlega, V. J., Gulley, M. R., Yankeelov, P. A., & Druen, P. B. (1993). Effects of gender role expectations on the social support process. *Journal of Social Issues*, 49(3), 175-190.
- Bartholomew, K. (1993). From childhood to adult relationships: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In S. W. Duck (Ed.), *Understanding relationship processes: Learning about relationships*(pp.56-61). London; Sage.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
- Bentler, P. M., & Newcomb, M. D. (1978). Longitudinal study of marital success and failur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5), 1053.
- Botwin, M. D., Buss, D. M., & Shackelford, T. K. (1997). Personality and mate preferences: Five factors in mate selec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65, 107-136.
- Brody, G. H., Stoneman, Z., Flor, D., & McCrary, C. (1994). Religion's role in organizing family relationships: Family process in rural, two-parent african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4), 878-888.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A, Bollen, JS Long,(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Buber, M. (1958). I and thou (RG Smith, Trans.). *New York: Scribner*, 11.
- Buehlman, K. T., Gottman, J. M., & Katz, L. F. (1992). How a couple views their past predicts their future: Predicting divorce from an oral history interview.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5(3-4), 295.
- Burr, W. R. (1971). An expansion and test of a role theory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3, 368-372.
- Carrère, S., Buehlman, K. T., Gottman, J. M., Coan, J. A., & Ruckstuhl, L. (2000). Predicting marital stability and divorce in newlywed coupl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4(1), 42.
- Carroll, J. S., Badger, S., & Yang, C. (2006). The ability to negotiate or the ability to love? Evaluating the developmental domains of marital competence. *Journal of Family Issues*, 27(7), 1001-1032.
- Cawley III, M. J., Martin, J. E., & Johnson, J. A. (2000). A virtues approach to personality.

-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8(5), 997-1013.
- Coffman, D. L., & MacCallum, R. C. (2005). Using parcels to convert path analysis models into latent variable model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0(2), 235-259.
- Cook, W. L. (1998). Integrating Models of Interdependence With Treatment Evaluations in Marital Therapy Research 1.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2, 529-542.
- Cook, W. L., & Kenny, D. A. (2005). The actor - 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 model of bidirectional effects in developmental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2), 101-109.
- Costa, P. T., & McCrae, R. R. (1988). Personality in adulthood: A six-year longitudinal study of self-reports and spouse ratings on the NEO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853-863.
- Cramer, D. (2000).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conflict style in romantic relationships. *The Journal of Psychology*, 134, 337-341.
- Cronbach, L. J., & Gleser, G. C. (1953). Assessing similarity between profiles. *Psychological bulletin*, 50(6), 456.
- Dahlsgaard, K. K. (2005). Is virtue more than its own reward? Character strengths and their relation to well-being in a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of middle school-aged adolescents.
- Dakin, J., & Wampler, R. (2008). Money doesn't buy happiness, but it helps: Marital satisfaction, psychological distress, and demographic differences between low-and middle-income clinic couple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6(4), 300-311.
- Dillaway, H., & Broman, C. (2001). Race, class, and gender differences in marital satisfaction and divisions of household labor among dual-earner couples: A case for intersectional analysis. *Journal of Family Issues*, 22, 309-327.
- Epstein, N., & Eidelson, R. J. (1982). Unrealistic beliefs of clinical couples: Their relationship to expectations, goals and satisfaction.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9(4), 13-22.
- Fincham, F. D., Stanley, S. M., & Beach, S. R. (2007). Transformative processes in marriage: An analysis of emerging trend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9(2), 275-292.
- Fowers, B. J. (2000). *Beyond the myth of marital happiness: How embracing the virtues of loyalty, generosity, justice, and courage can strengthen your relationship*: Jossey-Bass.
- Gattis, K. S., Berns, S., Simpson, L. E., & Christensen, A. (2004). Birds of a feather or strange birds? Ties among personality dimensions, similarity, and marital qualit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8(4), 564.
- Gaunt, R. (2006). Couple similarity and marital satisfaction: Are similar spouses happier? *Journal of personality*, 74(5), 1401-1420.
- Goldberg, L. R. (1992). The development of markers for the Big-Five factor structure. *Psychological assessment*, 4(1), 26.
- Gottman, J., Markman, H., & Notarius, C. (1977). The topography of marital conflict: A sequential analysis of verbal and nonverbal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 39(3), 461-477.
- Hargrave, T. D. (2000). *The essential humility of marriage: Honoring the third identity in couple therapy*: Zeig Tucker & Theisen Publishers.
- Hawkins, A. J., Fowers, B. J., Carroll, J. S., & Yang, C. (2007).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marital virtues.
- Heller, D., Watson, D., & Ilies, R. (2004). The role of person versus situation in life satisfaction: A critical examin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30(4), 574.
- Holman, T. B., Larson, J. H., & Harmer, S. L. (1994). The development and predictive validity of a new premarital assessment instrument: The preparation for marriage questionnaire. *Family Relations*, 46-52.
- Jacobson, S. M. (2003). *The attachment, caregiving, and sexual systems relationships to conflict communication in adult pair-bond relationship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Julien, D., & Markman, H. J. (1991). Social support and social networks as determinants of individual and marital outcome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4), 549-568.
- Karney, B. R., & Bradbury, T. N. (1995). The longitudinal course of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A review of theory, methods, and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18(1), 3.
- Karney, B. R., Bradbury, T. N., Fincham, F. D., & Sullivan, K. T. (1994). The role of negative affectivity in the association between attributions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2), 413-424.
- Kaslow, F., & Robison, J. A. (1996). Long-term satisfying marriages: Perceptions of contributing factor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4(2), 153-170.
- Kelloway, E. K. (1998). *Using LISREL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researcher's guide*: Sage.
- Kenny, D. A., Kashy, D. A., Cook, W. L., & Simpson, J. (2006). *Dyadic data analysis (Methodology in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NY: Guilford.
- Kobak, R. R., & Hazan, C. (1991). Attachment in marriage: Effects of security and accuracy of working mod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6), 861.
- Kurdek, L. A. (1995). The nature and predictors of the trajectory of change in marital quality over the first 4 years of marriage for first-married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2(4), 491-510
- Lee, S. K. (2015). *Comparison of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proaches in Small Sample Size Conditions: Pooled-Regression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 Leontopoulou, S., & Triliva, S. (2012). Explorations of subjective wellbeing and character strengths among a Greek university student sample. *International Journal of Wellbeing*, 2(3), 251-270.
- Levenson, R. W., & Gottman, J. M. (1994). The influence of age and gender on affect, physiology, and their interrelations: A study of long-term marria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1), 56-68.
- Lewis, R. A., & Spanier, G. B. (1979).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1,

- 269-294.
- Luo, S., Chen, H., Yue, G., Zhang, G., Zhaoyang, R., & Xu, D. (2008). Predicting marital satisfaction from self, partner, and couple characteristics: Is it me, you, or us? *Journal of personality, 76*(5), 1231-1266.
- Luquet, W. (2006). "Union Differentiates": Pierre Teilhard de Chardin's Philosophy Applied to Couple Relationships. *The Family Journal, 14*(2), 144-150.
- Mahoney, A., Pargament, K. I., Jewell, T., Swank, A. B., Scott, E., Emery, E., & Rye, M. (1999). Marriage and the spiritual realm: The role of proximal and distal religious constructs in marital functioning.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3*(3), 321.
- Malouff, J. M., Thorsteinsson, E. B., Schutte, N. S., Bhullar, N., & Rooke, S. E. (2010).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of intimate partners: A meta-analysi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4*(1), 124-127.
- Peterson, C., & Seligman, M. E. (2004).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 handbook and classific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문용린, 김인자, 원현주, 백수현, 안선영 역. 《긍정 심리학의 입장에서 본 성격강점과 덕목의 분류》. 서울: 한국심리상담연구소, 2009).
- Seligman, M. E. (2002).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New York: Free Press. (곽명단 역. 《완전한 행복》. 서울: 물푸레, 2004).
- Shackelford, T. K., Besser, A., & Goetz, A. T. (2008). Personality, marital satisfaction, and probability of marital infidelity. *Individual Differences Research, 6*(1).
- Snyder, D. K. (1979).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813-823*.
- Snyder, D. K. (1997).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revised (MSI-R)*. Los Angeles: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South, S. C., Turkheimer, E., & Oltmanns, T. F. (2008). Personality disorder symptoms and marital functioning.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6*, 769-780.
- Stanley, S. M., Whitton, S. W., Sadberry, S. L., Clements, M. L., & Markman, H. J. (2006). Sacrifice as a predictor of marital outcomes. *Family Process, 45*(3), 289-303.
- Strom, B. (2003). Communicator virtue and its relation to marriage quality. *The Journal of Family Communication, 3*(1), 21-40.
- Teilhard de Chardin, P. (1964). *The future of man*. New York: Harper Collins.
- Teilhard de Chardin, P. (1968). *Writings in time of war*. London: Collins.
- Tucker, L. R., & Lewis, C. (1973). A reliability coefficient for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8*(1), 1-10.
- van Eeden, C., Wissing, M. P., Dreyer, J., Park, N., & Peterson, C. (2008). Validation of the values in action inventory of strengths for youth (VIA-Youth) among South African learners. *Journal of Psychology in Africa, 18*(1), 143-154.
- Veldorale-Brogan, A., Bradford, K., & Vail, A. (2010). Marital virtues and their relationship

to individual functioning, communication, and relationship adjustment.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5(4), 281-293.

Ziv, A., & Gadish, O. (1989). Humor and marital satisfaction.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9(6), 759-768.

논문 투고일 : 2018. 10. 17

1 차 심사일 : 2018. 10. 25

게재 확정일 : 2019. 01. 08

The Effects of Individual Virtues and Couple's Virtues on Marital Satisfaction

Sua Lee

Young-gun Ko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individual virtues and couple's virtues on marital satisfaction. Virtues are the core characteristics valued by moral philosophers and religious thinkers: wisdom, courage, humanity, justice, temperance, and transcendence. Couple's virtues are the virtues being shared by husband and wife. In the current study, subjects consisted of 107 married couples living in Seoul and local areas in Korea. Each member of the couples was asked to fill out the questionnaires including short version of Values in Action-Inventory of Strengths(VIA-IS), couple's VIA-IS which is made out of VIA-IS to suit couples, and General Dissatisfaction Scale(GDS).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was applied to assess the couple variables that are inter-dependent by nature. The results showed that couple's virtues had greater effects upon marital satisfaction than individual virtues did. The significance of possessing couple's virtues rather than individual virtues was discussed.

Key words : virtue, character strength, marital satisfaction, APIM